

한국전력공사

필리핀 에미타발전소 운영계약  
해외 발전사업 본격 진출

한국전력공사는 폐지된 왕십리·부평내연발전소의 발전 설비를 필리핀 현지로 이설하여 10년간 재가동 운영키로 하는 '필리핀 에미타 내연발전소 재가동 운영사업' 계약을 지난 1월 10일 필리핀 세부에서 체결하였다.

한국전력공사는 이 사업에 약 240억원(출자 80억원, 차입 160억원)을 투자하여 필리핀 에미타 발전소에 왕십리와 부평내연발전소의 디젤발전기 12대를 이설하고 6만 4천500kW의 발전소로 재가동 운영할 계획이다.

필리핀으로 이설하게 된 왕십리 내연발전소는 67년 3사 통합 당시 주력사업으로 수도권 지역의 전력공급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전원개발사업이 꾸준히 진행됨에 따라 첨두부하용 발전소로 운영하던 왕십리 내연(62년 1월 준공)과 부평내연(68년 9월 준공) 발전소의 BC油연료 사용중지 및 수도권지역 복합화력의 계속적인 신설로 인해 폐지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들 발전소의 폐지가 결정되자 한국전력공사 사업개발팀에서는 역할이 끝난 디젤 발전설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해외 전력시장을 조사한 결과, 전력사정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조건이 적합한 필리핀과의 계약 체결을 추진해 왔다.

이번 사업개발은 금년 2월 필리핀 현지법인설립을 시작으로 96년 9월 상업운전에 들어가면 인건비 등 용역비를 제외하고도 10년간 약300억원의 세후 순이익을 예상할 수 있고, 3~4년내에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순조로운 사업전개가 예상된다.

해외사업 개발에 힘쓰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는 이 사업 외에도 바탄원전 재가동사업, 말라야화력 재가동 운영사업등도 추진하고 있어 지속적인 필리핀 진출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중공업

中國 秦山원전 원자로 공급계약  
국내 최초 원전설비 수출

한국중공업(주)는 중국에 원자력발전소 주요 기자재를 처음으로 수출하게 된다.

한국중공업은 지난 1월 17일 중국 核電秦山聯營公社(Nuclear Power Qinshan Joint Venture Corp.)와 秦山원자력발전소 1,2호기의 원자로 격납용기(Reactor Vessel)를 약1,000만달러에 공급키로 계약 체결했다.

한중과 고합그룹이 컨소시엄으로 수주한 이 진산원전은 한중이 원자로 압력용기 및 관련기기등 원전 기자재를 공급하고, 고합은 수출창구 및 금융알선 등을 맡는다.

진산원전은 중국 浙江省 秦山에 건설되는 600MW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 2기로 오는 95년 12월 건설에 들어가 2001년말에 준공될 예정이다.

이번 수주는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프랑스 프라마톰社, 미국 웨스팅하우스社, 일본 미쓰비시社 등과 경쟁을 통해 수주한 것으로 중국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프랑스 원전 기자재 설계 및 제작규격인 RCC-M Code를 사용함으로써 원전수출의 애로사항이던 미국정부의 수출허가가 필요치 않으며, 사용기술 또한 이미 사용한 바 있는 상용기술이기 때문에 ABB-CE측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국내업체가 중국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 원전설비를 수주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다, 지난해 李鵬 중국 총리의 방한기간중 이뤄진 韓-中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이후의 첫 개가여서, 이번 중국 원전시장 진출은 양국간의 실질적인 원전부문협력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국은 오는 2020년까지 40여기, 그리고 2050년까지는 100기의 원전을 각각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 2000년대 초반까지 중국 원전시장 규모가 줄잡아 2천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

다목적원자로 「하나로」 초기임계 달성  
금년 4월 정상가동 계획

원자력계의 숙원사업인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가 금년 4월 정상가동을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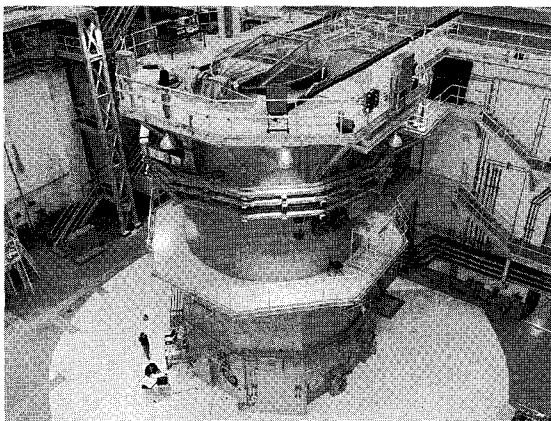
우리 기술로 설계·건조된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가 연료장전 시작(2월 2일) 이래 7일만인 2월 8일 하오 4시 초기임계에 도달함으로써 원자로의 정상가동을 위한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초기임계란 원자로가 운전을 시작한후 핵연료에서 나오는 중성자가 처음으로 흡수되는 중성자수보다 많아 핵분열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원자로가 정상가동에 들어선 것을 의미한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하나로」의 초기임계 도달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비롯 전세계 원자력 관련기관에게 전문으로 공식 통보했다.

이 원자로의 특성은 우리 기술진이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국내 과학계의 쾌거로 성능면에서나 첨단기술의 수용면에서 세계 10위권안의 고성능 연구용 원자로이다.

다목적이란 명칭에서 나타나듯이 「하나로」는 핵연료등 원전과 관련된 소재개발, 반도체 제조, 기초과학연구등 다양하게 이용된다.



<다목적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가 금년 4월 정상 가동할 예정이다>

연구용원자로는 발전용보다 농축도가 5~7배나 높은 20% 농축우라늄을 사용함으로 중성자가 많이 나온다. 따라서 발전용에서 10년 걸리는 실험을 연구용으로 1년이면 끝낼수 있다.

총 9백34억원을 들여 10년만에 준공한 「하나로」가 정상가동되면 작년말 가동된 포항의 방사광 가속기와 더불어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원자력과 재료물성분야의 기초 및 응용연구용 대형 실험시설로 쌍벽을 이루게 된다.

열출력 30MW급의 「하나로」는 핵연료 및 원자로 소재의 물성변형을 실험하는 노내시험조사를 수행하게 되어 원전의 안전성을 보다 획기적으로 향상시킬수 있고, 이와 함께 다양한 의료용·산업용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 국내 병원의 핵의학적 치료는 물론 해외시장을 위한 동위원소의 수출까지 겨냥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중성자 빔 포트를 이용한 재료물성 연구분야에도 폭넓게 이용돼, 포항의 방사광 가속기 시설과 더불어 21세기 우리나라 첨단과학기술의 총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 4월부터 하나로가 정상가동되면 원자력계는 물론 기초물리분야 및 첨단산업분야, 그리고 환경감시시료의 극미량 분석을 수행하는 중성자 방사화 기술 실용화등 다양한 활용성이 기대된다.

현재 국내는 물론 외국의 관계기관에서 이용신청 및 공동연구 제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원자력연구소는 국가적인 세계화·개방화 추세에 부응, 하나로의 국제공동 활용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석유협회

제10대 禹完植 會長 선임

대한석유협회는 지난 2월 28일 정기총회를 열고 제10대 회장에 禹完植 한화에너지 대표이사를, 부회장은 洪贊基 민자당 중앙상무위원을 각각 선임했다.

신임 禹完植 회장은 61년 서울대 상대를 졸업, 65년 미룡상사 전무와 83년 경인에너지 전무, 동일석유 대표등을 거쳐 최근 한화에너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대한광업진흥공사

석·골재업체에 올해 185억원 지원  
현대화 및 자동화시설에 우선

대한광업진흥공사는 올해에도 석재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185억원의 자금을 업체에 융자 지원키로 했다.

대한광업진흥공사는 석재산업을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성장유망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석산의 기초 조사를 내실화하고, 석재자원의 합리적 개발 및 투자 경제성 재고를 위해 석재 시추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석재가공기술의 선진화와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선진기술도입 및 개발보급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석재기능공양성 훈련실시, 석·골재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안전교육강화, 석재개발정보의 전산화구축등 세부계획을 마련, 적극 추진키로 했다.

현재 국내 석재산업 현황을 보면 석·가공업의 연간 생산액 규모는 6천억정도(석산 1천억, 가공 5천억)로 약 1,000여업체(석산 200, 가공 800)가 생산활동 중에 있다.

특히 석산업체의 경우 평균종업원수가 15명정도이며, 생산액도 6억원 정도로 소규모 또는 영세업체가 70%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 가공업체도 석산업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균 종업원이 12명, 생산액 6억원 정도로 소규모업체가 80%를 육박하고 있다.

따라서 석재업체의 영세성과 노동집약적 재래식 시설등 기술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없이는 국제경쟁력 약화로 수출이 감소될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골재산업도 현재 900여업체에 연간 약 1조 2천억 정도의 생산규모를 가지고 있다.

광업진흥공사는 지난 3년(90~93) 동안 낙후된 석재업체를 지원 육성키 위해 석산 기초조사 562건(가용매장량 32,180천m<sup>3</sup>확보), 석산시추 40,260M, 석재 기능공양성 414명, 석재산업 육성자금 592억원 등을 지원했다.

그러나 앞으로 석재수출은 갈수록 감소될 전망이다.

지난 92년 2억 6천 8백만달러였던 수출이 93년 2억 2천 2백만 달러로 평균 9.3%정도 감소했으며, 수입은 매년 증가되어 89년 3천 7백만 달러였던 것이 지난해는 5천 8백만달러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석재수출은 89년도까지는 신장세였으나, 90년이후 대외경쟁력 약화 및 수출액의 98%를 점유하고 있는 일본시장을 중국등 후발국가에 의해 시장잠식으로 수출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광업진흥공사는 이러한 국내 석재산업 현황을 파악, 95년도부터는 석재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산업으로 육성시킨다는 계획을 수립, 양질의 석재자원 확보에서부터 보다 선진화된 가공 기술을 도입하여 업체에 보급하는등 석재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 전 기 공 (주)

울진 1,2호기 주발전기 기술용역  
자체평가 및 시사회 가져

한전기공(주) 울진사업소는 지난 1월 18일 울진1,2호기 계획예방정비 기간(5년차)중 성공리에 완료한 주발전기 기술용역 수행에 대한 자체평가회 및 비디오 시사회를 한전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행사는 한전의 이승차 발전소장을 비롯해 한전기공과 한전의 실무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는데, 기술용역 수행의 주요 내용은 고정자 슬롯웨지의 리플탄성도 시험, 회전자 인터폴라 커넥션 코일 교체 및 회전자 중간 단락시험 등이다.

이번 울진 1,2호기 주발전기 기술용역 수행에서 성공적인 결과로 꼽을수 있는 것은 지지링 가열장비를 국내장비로 대체함에 따른 외화절감과 국내 기술자립 이었으며, 고정자의 리플탄성도 시험과 회전자 인터폴라 커넥션 코일 교체 작업시 용접부분에 대한 신뢰성확보가 기술자립의 과제로 대두됐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 창립 21주년 기념식 행사 가제 새로운 역사창조 다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창립 21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2월 2일 본사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공사 발전에 기여한 지사 및 직원들에 대한 시상식과 우수 지사로 경남지사가 표창을 받았으며, 모범직원 12명, 자율공직기강 8명, 그리고 장기근속 직원 18명이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임종순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공사 창립 21주년을 맞아 가스안전 의식의 저변확대와 안전관리의 확고한 터전을 가꾸어 온 임직원의 노고에 대해 치하한 후, 한 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길목에서 가스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사의 역할과 임무가 어느때보다 중요함을 깊이 인식, 전임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가스안전관리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자”고 강조하고, 공사발전을 위한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했다.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스태프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로 공사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여 올바른 가스문화정착에 기여하자고 밝히고, 직무수행시 청렴한 자세의 확립으로 모든 사람의 수범이 되고 공인으로서 국가와 사회의 신뢰를 받는 가운데 조직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 포항종합제철(주)

### 고장력 타이어코드 線材 국산화 수입대체효과 연간 1백억원

포항종합제철(주)는 최근 3백20kg/mm<sup>2</sup>급 고장력 타이어코드용 선재개발에 성공했다.

86년 동양나이론, 고려강선 등의 국내 타이어코드 업체와 공동으로 개발에 착수한 지 10여년만에 개발에 성공한 이 고장력 타이어코드는 일반 타이어코드가 탄소 0.7%에 인장능력이 2백80kg/mm<sup>2</sup>인데 비해 탄소 0.8%에 인장강도가 3백20kg/mm<sup>2</sup>에 이르는 최고급 강종이다.

기존의 고장력 타이어코드용 선재는 전량 일본에서 수입해 사용해 왔으며, 이번에 포철이 국산화에 성공함에 따라 연간 1백억원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타이어코드는 지름 5.5mm의 선재를 머리카탁 두께인 0.15mm로 가공한 것으로 자동차 브레이크싱 및 고속 주행성을 향상시키는 타이어 보강재인데, 이번에 개발한 고장력 타이어코드는 일반 타이어코드보다 15%정도 강도가 높아 타이어코드 중량감소로 인한 자동차 경량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국내 타이어산업의 강제수요는 자동차산업 호조 및 물동량 증가로 국내 타이어코드 수요는 올해 약8만톤으로 이중 고장력재의 구성비는 94년 21%에서 금년에는 36%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포철은 타이어코드 고강도화의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일본등 선진국에서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3백60kg/mm<sup>2</sup>급 초고강도 타이어코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에너지관리공단

### 세계 에너지 효율협회(WEEA) 가입 세계 에너지동향 파악위해

에너지관리공단이 에너지관련 국제정보를 신속히 입수, 세계의 에너지동향을 파악하고 해외 에너지절약 추진기관과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절약 효율기관들의 모임인 세계에너지효율협회(WEEA : 회장/설리번)에 금년 1월 가입했다.

美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는 WEEA는 선진국의 에너지 절약프로그램과 기술 및 대책을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전세계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지난해 6월 설립됐으며, 현재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영국등 선진 각국의 에너지 관련기관과 국제기구인 IEA, EC위원회, UNECD, IBRD등 35개국 48개 기관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국제단체이다.

이번에 에너지관리공단이 WEEA에 가입함에 따라 에너지 효율에 대한 국제적인 데이터 베이스(D/B)망 구축이 가능해지고, 선진국에서 성공한 에너지절약 신기술의 도입이 빨라지며 개도국과의 정보교환 및 지원사업이 강화될 전망이다.

(주) 유 공

**초고점도지수(VHVI) 윤활기유 생산공정**  
 美와 공동판매 계약 체결

유공은 지난 1월 11일 본사 14층 회의실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연속 프로세스에 의한 초고점도지수(VHVI: Very High Viscosity Index) 윤활기유 생산공정의 공동판매 계약을 美 레이씨온社(Raytheon Engineers & Constructor, Inc)와 체결했다.

이날 계약은 조규향 사장, 배리(Mr. V. J. Barry) 레이씨온社 수석부사장등 양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됐다.

전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자동차 엔진이 고성능화 됨에 따라 엔진 수명을 연장시키고 연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고품질의 윤활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울산연구소 석유공정연구실과 UCO기술팀에서 92년부터 고급 윤활기유제조공정 개발에 착수, 약50억원을 들여 이 공정 개발에 성공했다.

「Yukong UCO Lube Process」로 부르기로 한 이 공정기술은 현재 세계 최고 품질인 초고점도지수(VHVI) 윤활기유를 제조하는 공정으로 중질유분을 경질유분으로 만드는 중질유 분해시설에서 경질유로 전환되지 못한 부산물인 미전환유(Unconverted Oil)를 윤활기유로 만드는 공정이다.

현재 초고점도지수(VHVI) 윤활기유 생산공정은 엑슨(EXXON), 비피 프랑스(BP FRANCE)社등 소수기업이 보유하고 있다.

이들 공정은 왁스를 이용해 기유를 만들거나 중질유 분해시설에서 나온 미전환유를 윤활유 기유공장으로 가져와 특별처리를 해서 기유를 만드는 것으로, 투자비나 운전비가 비싼데 비해 유공이 개발한 공정은 중질유 분해시설에서 나온 미전환유를 윤활기유 공장으로 바로 보내 연속공정으로 기유를 생산하여 투자비와 운전비를 대폭 절감하면서도 품질은 우수하다.

호 남 정 유 (주)

**對北지원 重油 1차분 5만톤 선적**  
 단일품목으로 최대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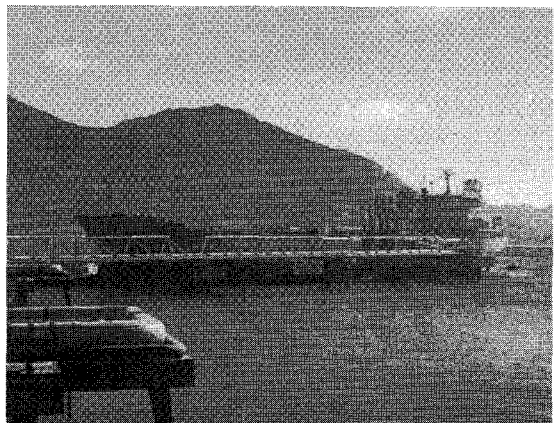
호남정유(주)는 북미합의에 의해 미국이 북한에 제공하는 대체연료 중유 1차분 제공자로 선정되어, 95년 1월 11일 여천공장 사포원유 제1부두에서 5만톤의 중유선적을 시작했다.

호남정유는 미국측이 주선한 중국국적 다킹 94호에 22,428톤의 중유를 선적하였으며, 선적을 마친 선박은 지난 1월 12일 오후 5시경 출항하였다.

나머지는 라이베리아선적의 라크레이크호에 1월 14일에 선적이 시작되어 15일 오후 4시경 출항하였다.

지난 1월 11일, 12일 원유부두에는 국내일간지, 방송사 등 언론사와 에이피, 에이에프피, 로이터, 씨앤앤등 해외 유력 통신사, 방송사, 신문사 취재진 50여명의 열띤 취재 경쟁이 벌어져 국내외의 반향을 나타냈으며, 전세계 언론에서 주요뉴스로 취급하였다.

호남정유의 이번 북한 중유 공급은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 반입되는 물품 가운데 단일품목으로는 최대 규모였다고 한다.



<北美 핵협상 타결에 따른 對北 대체에너지 지원계획의 일환으로 북한에 저유황 B-C油 5만톤을 공급했다>

현 대 중 공 업 (주)

美國 워싱턴주 230kV급 변압기 수주  
세계적인 기술수준 인정

현대중공업(주) 중전기사업본부는 최근 美國의 워싱턴주 시애틀 전력청으로부터 하이드로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1,500만달러 상당의 230kV급 변압기 패키지를 일괄 수주하였다.

이번에 수주한 변압기는 1963년에 미국의 GE社가 공급했던 노후된 변압기를 교체하는 것으로서 1995년부터 순차적으로 납품하게 된다.

국제입찰로 실시된 이번 입찰에서 현대중공업은 다국적 기업인 ABB 미국의 GE 및 이탈리아의 안살도社등 세계 유수기업과 경쟁끝에 최종 선정됨으로써 다시 한번 현대 변압기의 세계적 기술수준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미국의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중전기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미국 시장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금년들어서는 캐나다에 500kV급 변압기(400만달러) 수출, 일본동경전력 변압기 입찰참가자격 획득등 동남아 및 중동시장을 탈피하여 선진시장으로의 수출선 다변화에 성공함으로써 변압기의 세계적인 제조업체로 부상하고 있다.

효 성 중 공 업 (주)

초고압 차단기 접촉소자 개발  
IR52 蔣英實賞 수상

효성중공업(주)는 최근 전력수요 급증으로 345kV계통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 지난 91년부터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초고압 차단기의 접촉소자를 개발, 상품화에 성공함으로써 IR52 장영실상을 수상했다.

국내 최고 송전전압인 345kV에 적용되는 초고압 차단기의 아크접촉소자의 국산화는 국내 접촉소자 제조기술을

한단계 끌어올린 계기로 평가된다.

접촉소자는 텅스텐과 구리의 분말을 적절하게 혼합한 뒤 성형 소결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제품화된다.

효성중공업 연구팀은 텅스텐과 구리의 혼합을 높이기 위해 기존 V형 용기대신 유니버설조인트를 모방한 3차원 혼합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했다.

이 3차원 혼합기는 금속분말을 이용하는 다른 제조분야에도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성형프레스의 금형이나 압력, 초기 혼합시 텅스텐과 구리의 혼합비 등에 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50개 이상 특성이 각기 다른 접촉소자를 제작해 성능이 뛰어난 최종제품을 만들었다.

효성중공업이 개발한 아트접촉소자의 차단보증능력(20회)은 기존수입품(10회)의 두배이며, 차단용량(25GVA)도 기존 제품(15GVA)보다 크게 향상된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향후 800kV급 차단기의 개발에 대비한 기술 축적이라는 측면에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170kV급 차단기용 접촉소자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데 이어 345kV급 접촉소자까지 국산화함으로써 국내에서는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하게 됐다.

현 대 정 유 (주)

대산본사 신규사택 200세대 준공  
1인 1세대 주택공급 계획

현대정유 대산본사는 93년 12월에 착공한 신규 사택의 건설을 완성하고, 지난해 12월 28일 준공식 및 입주식을 가졌다.

충남 대산군 대산읍에 위치해 있던 200여세대 규모의 기존 사택의 옆에 건설된 신규사택은 총200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져 무주택 근로자와 독신자들이 보금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현대정유는 현재 진행중인 20만배럴 증설사업이 완료되는 96년초까지는 수영장과 테니스장 등을 갖춘 4백여세대의 사택을 추가로 더 건설해 700여 근로자들의 「1인 1세대 주택공급」의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 한국수자원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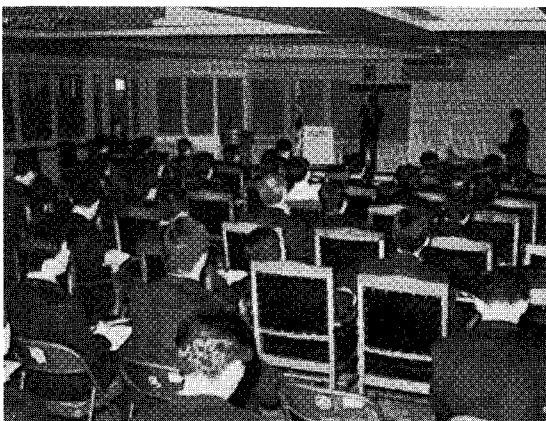
#### 제11회 댐관리 기술발표회 개최 댐운영관리 및 신기술 소개

한국수자원공사는 최근 댐 및 발전설비의 운영관리와 수질, 환경에 관한 부문별 운용사례, 조사보고, 신기술 소개 등을 내용으로 한 제11회 댐관리 기술 발표회를 본사 신사옥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한국수자원공사 댐관리사업본부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기술발표회에서는 이희승 부사장을 비롯 정광용 기술본부장, 노재화 댐관리본부장, 정인호 수도사업본부장 등 100여명의 현장과 본사직원이 참가하여 11회를 맞는 기술발표회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회의에서 이희승 부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최근의 치열한 국제 기술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기술자립과 기술개발 뿐임"을 강조하고 더욱 알차고 내실있는 연구가 뒷받침되어 개인 발전은 물론 공사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당부했다.

모두 8개의 주제가 발표된 후 노재화 댐관리사업본부장은 강평을 통해 "항상 연구하는 자세와 시각으로 문제의식을 견지하는 업무태도"를 전제한 후, 발표된 내용들이 사장되지 않고 공사 내에 두루 전파되어 활용될 수 있는 사후 노력에도 진력해 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바쁜 업무 일정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주제를 연구해 준 발표자들의 노



<제11회 댐관리 기술발표회가 본사 신사옥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고를 치하였다.

### 한국전력기술(주)

#### 영동화력2호기 발전용 배연탈황사업 터키 수주계약 체결

한국전력기술(주)는 최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영동화력 2호기(200MW)의 발전용 배연탈황 실증설비사업을 265억원에 터키로 수주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수주사업은 신규특허 파일럿 플랜트 공정을 실용화시키는 1단계로 94년 11월부터 97년 10월까지의 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G-7 환경공학 기술개발 사업으로서 종합 Engineering Contractor 회사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국제적인 종합기술회사로서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국제적인 신흥 기술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배연탈황설비는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되는 아황산가스를 배출 전단계 공정에서 제거함으로써 대기오염을 저감시키는 첨단 환경오염 방지설비로서 WTO등 국제경쟁 가속화에 따른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현상에 따라 한전기술연구원이 정부 출연자금 200억원과 자체자금 780억원을 투입, 석회석 석고 재생 공정법을 연구해 왔으며, 영동화력발전소 구내에 10MW급 파일럿 플랜트를 준공하여 시운전 중에 있다.

한편 한국전력기술은 지난 84년 4월부터 발전용 탈황관련 기술을 축적해 왔으며, 본 사업을 터키로 수행하게 됨으로써 사업영역의 다각화 및 신기술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설계 및 관련기술 분야에만 수행해 오던 업무에서 벗어나 기자재 구매, 시공, 사업관리등 포괄적인 업무까지를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에너지 및 환경 플랜트 건설과 관련된 기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국내 관련사업 뿐아니라 해외시장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한 국 가 스 공 사

지하 도시가스 공급·차단기지 개선  
천정개방, 울타리설치등 보강공사

한국가스공사는 가스누출시 환기가 제대로 되지않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던 지하 V/S의 천정이 개방되고 울타리가 설치되는등 보강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지하에 있는 독산 V/S등 6개의 도시가스 공급기지 또는 차단기지를 오는 7월말까지 개선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방법모색과 함께 해당 관청과 협의에 들어갔다.

현재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천정을 개방하여 가스누출시 신속한 배출을 용이토록 하는 방안과 울타리가 없는 기지에 외부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울타리를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근무요원들을 위한 공조설비 설치등도 추진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를 위해 현재 공원부지나 도로용지로 되어있는 지하 V/S의 개선을 위해 해당관청과 용지매입 등에 관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중이다.

이밖에도 공급기지사 차단기지에 문제가 생겼을 때나 보수작업시 이를 거치지 않고도 천연가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우회배관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 화 에 너 지 (주)

인천공장내 울도에 제3부두 완공  
총20만DWT 처리능력 갖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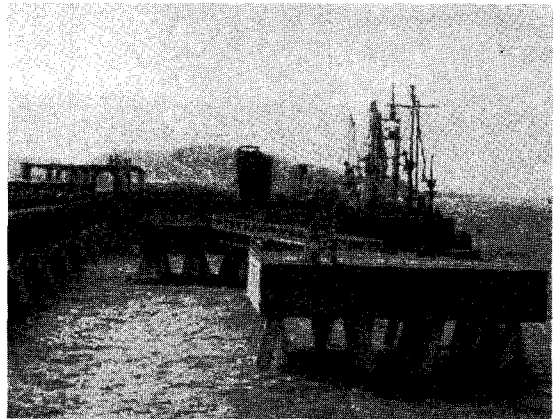
한화에너지(주)는 작년말 인천공장내 울도에 7만 5천 DWT급(Dead Weight Ton : 적재 중량 톤수)의 제3부두를 완공하였다.

총312억의 사업비를 투자, 93년 3월부터 약 22개월이 소요된 이번 사업에서는 3천 DWT급 소형 2선좌가 포함된 7만 5천 DWT급의 계류시설과 더불어 로딩암의 상부

시설, 810M의 노교시설 등이 건설되었다.

한화에너지는 이번 제3부두의 완공으로 총 20만 DWT의 처리능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날로 증가하는 수도권지역의 원활한 석유제품 공급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또한 향후 석유제품 수출입 자유화에 따른 유통의 활성화 측면에서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인천공장내 울도에 7만5천 DWT급의 제3부두를 완공하였다>

쌍 용 정 유 (주)

고객상담 안내실 운영 의견접수  
고객만족 이미지 제고위해

쌍용정유(주)는 저공해 고품질 제품에 대한 영업활동을 강화하면서 고객만족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지난 12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고객상담 안내실에 지금까지 총24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다.

자동응답전화와 팩스기를 설치·운영하여 접수된 의견은 주유소 위치와 등유·경유등 난방용 유류의 배달을 문의하는 내용이 가장 많았고, 제품의 품질과 청정등유에 대한 문의, 광고 관련 건의 사항 등이다.

한편 쌍용정유는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전화나 서신으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는 한편 쌍용주유소위치 표기 지도와 카렌다를 고객에게 발송하고 있다.